

# 볼프는 <중국인철학자공자>를 어떻게 읽었는가?

안재원\*

## 【요약】

이 글은 계몽주의 철학자 크리스티안 볼프(Christian Wolff, 1679-1754)가 동양의 고전을 어떻게 읽었고, 어떤 입장에서 수용했는지를 문헌학적으로 밝히려는 작은 시도이다. 여러 접근 방식이 있겠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볼프의 *psychologia*와 인토르체타의 *natura*의 비교를 논의의 중심에 놓겠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심리학(*Psychologia*)에 대한 볼프의 생각을 소개하겠다. 이어서 볼프의 『경험심리학, *Psychologia empirica*』과 『이성심리학, *Psychologia rationalis*』에서 인토르체타(*Prospero Intorcetta*, 1626-1696)가 번역한 라틴어 『중용』의 흔적을 추적하겠다. 마지막으로, 동양 고전에 대해 볼프가 직접 밝힌 자신의 입장을 소개하겠다.

【주제어】 볼프, 심리학, 인토르체타, 『중국인철학자공자』, 성

---

\*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07-361-AL0016)이고,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문명연구사업단의 공동연구팀인 시나브로(17세기 동서 문헌의 교류 역사 연구팀)팀의 도움을 받아 지어진 글이다.

\*\*\* 논문의 개선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심사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지적인 내용들은 논문의 교정과 수정에 가능한 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어떤 지적은 이 글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보충하겠다.

## I. *Psychologia*에 대한 볼프의 생각

*Psychologia*는 서양 고대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는 단어이다. 『그리스어 대사전(*Thesaurus Linguae Graecae*)』을 검색했지만, 이 단어를 찾지 못했다. 이 단어는 1530년에 처음 등장한다. 크로아티아 출신 마르코 마룰리치(Marko Marulić, 1450-1524)가 저술한 『인간 심리에 대하여(*Psychologia de ratione humanae*)』에서다. *Psychologia*라는 말이 서명에 등장한다. 그러나 이 책을 널리 읽힌 것은 아니었다.<sup>1)</sup> *Psychologia*는 독일 출신 교부 철학자 로돌프 괴켈(Rudolf Goeckel, 1547-1628)이 1590년 마브룩에서 출판한(『심리학이란 인간 「행동」의 수행, 심리, 발생에 대한 논의이다(*Psychologia hoc est de hominis perfectione, anima, ortu*)』에서 발견된다. 이 책은 마음을 행동학의 관점에서 탐구한 저술이다. 흥미로운 점은, 마음을 지칭하는 전통적인 개념인 *anima* 대신에 *psychologia*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서 인용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고 볼 때에 괴켈의 *Psychologia* 개념도 학자들에 의해서 널리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잘 보여주

\* 이와 관련해서는 Christian Wolff, *Oratio de Sinarum philosophia practica*, Michael Albrecht(역주)(1988, Hamburg); Julia Ching & Willard G. Oxtoby, *Moral Enlightenment: Leibniz and Wolff on China*, *Monumenta Serica* XXVI(1992, Sankt Augustin); Willy Richard Berger, *China -Bild und China-Mode im Europa der Aufklaerung*(1990, Koeln); 井川義次, 『宋學の西遷』(2009, 人文書院); 이향만, 『중국인철학자공자(*Confucius Sinarum Philosophus*)』와 계몽철학: 전례논쟁의 철학적 영향과 형이상학적 보편주의, 『신학과 철학』 17(2010, 서강대학교), 1-47; 데이비드 E 먼젤로의 『진기한 나라, 중국』, 이향만, 장동진, 정인재 옮김(2009, 나남출판사); 주겸지(周謙之), 『중국이 만든 유럽의 근대』, 전홍석 옮김(2003, 청계출판사); Lionel M. Jensen, *Manufacturing Confucianism*(1997, Duke University Press)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대체로 『중국인철학자공자』 텍스트의 수용 관계를 문헌학적인 방법론에 기초한 것들은 아니다.

1) 참조, *Philosophia rationalis sive logica pars I*, hersg. v. Jean École, Hildesheim, 1983 (1740), 154-157.(이하는 PRS로 약칭함).

는 전거가 볼프(Christian Wolff, 1679-1754)의 『경험심리학』(1732)과 『이성심리학』(1734)이다. 두 문헌에서 괴켈이나 마를리치의 이름과 그들의 저서가 전혀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psychologia*가 전문학술용어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볼프의 기여일 것이다. 이를테면, 두 저서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볼프는 *psychologia* 개념을 논의의 전면에 부각시키고, 마음을 지칭하는 전통 용어인 *anima*의 상위 개념으로 놓기 때문이다. 두 개념은 서로 가리키는 범주가 다르고 그 대상도 다르며 결론적으로 접근 방식도 다른 무엇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런 설정과 관련해서, 볼프는 특히 마음에 대한 자신의 연구가 이전의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것임을 천명한다.

Novum est, fateor, hoc ausum: nemo enim hactenus philosophorum ex essentia animae rationem a priori reddere conatus est, cur istiusmodi potius insint facultates, quam aliae, et cur anima has potius in modificationibus suis sequatur leges quam alias.<sup>2)</sup>

선언하건대, 나의 시도는 새로운 것이다. 지금까지 철학자들 중 어느 누구도 선형적인 심급에서 마음의 본질로부터 그 체계를 구성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즉, 도대체, 이런 종류의 능력들이 다른 능력보다 더 센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마음이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함에 있어서 다른 법칙들이 아닌 이 법칙들을 따르는지를 규명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볼프가 강조하는 새로움이란 마음의 문제를 이성과 경험의 연관 관계에서 접근해 온 연구 전통에서 벗어나서 설명하려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거는 다음과 같다.

Evicimus autem independenter ab omni systemate explicandi commercium,

---

2) *Psychologia rationalis methodo scientifica pertracta, qua ea, quae de anima humana indubia experientiae fide innotescunt, per essentiam et naturam animae explicantur, et ad intimiorem naturae ejusque autoris cognitionem profutura propununtur.*, Autore Christiano Wolfio, Francofurti et Lipsiae, 1740(이하는 PR로 약칭함), b1.

quod animae cum corpore intercedit, inesse animae vim sibi repraesentandi hoc universum eo, quem diximus, modo et in hac vi pro diverso ejus respectu non minus essentiam, quam naturam animae consistere.<sup>3)</sup>

나는 마음이 몸과 관련 있다는 모든 종류의 설명 체계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서 이 세계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에게 표상하는 힘이 있음을 입증했다. 그리고 맞은편에서 비취준다는 점에서 본질, 다름 아닌 마음의 본성이 바로 이 힘 안에 있음도 입증했다.

마음의 본질 혹은 본성을 그것이 비추는 세계와의 대응 구조에서(*pro diverso ejus respectu*) 찾았다는 언급에 눈길이 간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보충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해서, 볼프는 철학의 대상 영역을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

§56. Tres hinc enascunt philosophiae partes, quarum una de Deo, altera de anima humana, tertia de corporibus seu rebus materialibus agit.<sup>4)</sup>  
제56장 여기로부터 철학의 세부분이 나온다. 그것들 중 하나는 신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마음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가 신체와 물질에 대한 것이다.

볼프의 세 구분에 대해 다음의 보충이 가능하다. 우선, 볼프는 신과 관련한 철학의 부분을 “자연신학(*Theologia Naturalis*)”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발적인 규정인데, 그 이유는 신의 은총을 절대시하던 계시 신앙에 맞서서 세계와 세계에서 벌어진 사건과 사태들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평에서의 해석과 판단이 요청되는 “가능한 것들(*possibilia*)”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볼프 철학의 핵심 개념은 “가능한 것들(*possibilia*)”이란 것인데, 그는 이를 심리학의 정의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다음과 같다.

§58. Pars philosophiae, quae de anima agit, Psychologia a me appellari solet. Est itaque Psychologia scientia eorum, quae per animas humanas

3) *PR*, b1.

4) *PRS*, 28.

possibilia sunt.<sup>5)</sup>

제58장 마음을 다루는 것도 철학의 부분으로 내가 이를 *Psychologia*라고 부르곤 했던 것이다. 심리학은 인간 마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들에 대한 학문이다.

그렇다면, 마음에 대한 볼프의 생각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다.

§60. Anima duplicem habet facultatem, cognoscitivam atque appetitivam. Haec per experientiam certa sumimus, suo loco explicanda et stabilienda uberius. Nec minuc patet, utramque facultatem in suo exercitio aberrare posse, nempe cognoscitivam a veritate, appetitivam a bono, it ut illa errorem loco veritatis amplectatur, haec malum loco boni eligat.<sup>6)</sup>

제60장 마음은 두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지 능력과 욕구 능력이 그것이다. 이는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해당 자리에서 자세하게 해명하고 확증하겠다. 아무튼, 이 두 능력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즉 인지 능력도 진리로부터, 욕구 능력도 좋음으로부터 벗어나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지 능력도 진리 대신에 오류를 포함할 수 있고, 욕구 능력도 좋음 대신에 나쁨을 택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마음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욕구가 좋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점은, 볼프가 후자를 관장하는 것을 실천 철학으로 정의한다는 것이다.

§62. Ea vero philosophiae pars, quae usum facultatis appetitivae in eligendo bono et fugiendo malo inculcat, philosophia practica dicitur.

제62장 좋음을 택하고 나쁨을 피하는 욕구 능력의 사용에 대한 학문이 실천 철학이다.

5) *PRS*, 31-32.

6) *PRS*, 30.

중요한 점은 볼프가 실천 철학의 준거를 “가능한 것들”이 허용되는 마음의 작용에 놓고, 윤리학, 정치학, 경제학, 자연법학 등의 실천 철학의 원리들이 마음의 작용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전거는 다음과 같다.

§92 Si in philosophia practica omnia demonstranda, principia petenda sunt ex Metaphysica. Philosophia practica demonstrat, qua ratione dirigenda sit facultas appetitiva in eligendo bono et fugiendo malo (§62). Sed Psychologia explicans ea, quae per animas humanas possible sunt (§58.), eorumque rationem reddens (§31.), facultatem appetitivam ejusque a ceteris facultatibus mentis dependentiam declarat. Philosophia itaque practica ex Psychologia principia petit. In jure naturae, quod philosophiae itaque practicae pars est (§68.), demonstrantur officia hominis erga Deum (§. cit.) et in Ethica docetur, quomodo homo officiis istis absque obligatione externa a potestate civili manante satisfacere queat (§64.). Quemobrem cum officia erga Deum nec demonstrari, nec eorum praxis doceri absque illius cognitione possit, quod ex ipsa Ethicae arque Juris naturae pertractatione liquet; Dei autem cognitio a Philosopho ex Theologia naturali hauriatur (§57.); Jus naturae atque Ethica ex Theologia naturali principia supponunt, si demonstrativa ratione pertractari debent. Philosophia practica universalis theoriam pariter ac praxin omnium philosophiae practicae partium generalem tradit (§70.), in notionibus vero istis generalibus stabiliendis non simplici vice recurrere debet ad Theologiam Naturalem atque Psychologiam: quod utramque disciplinam intueri patebit. Philosophia igitur practica universalis principia ex Theologia naturali atque Psychologia petit.<sup>7)</sup>

제92장. 실천 철학 전체를 증명해야한다면, 그 원리들은 형이상학에서 구해야 한다. 실천 철학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좋음을 선택하고 나쁨을 피하는 욕구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들을 해명하는 심리학은 그것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욕구 능력과 그것이 계산하는 마음의 다른 능력들과의 의존 관계를 해명한다. 따라서 실천 철학은 원리들을 심리학으로부터 구한다. 실천 철학의 부분인 자연법과 관련해서, 신에 대한 인간이 가져야할 의무들이 해명된다. 윤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의무들과 시민적 권리와 권한의 규제되는 외적인 관계가 요구하는

---

7) *PRS*, 410.

의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따라서 신에 대한 의무들과 그것들의 실천은 저 윤리학과 자연법에 대한 고찰로부터 얻는 얇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에 대한 얇은 철학자에 의해서 자연철학으로부터 끌어 와야 한다. 자연법과 윤리학으로 자연철학으로부터 원리들을 끌어올 수 있다. 만약 그것들을 증명의 방식을 이용해서 고찰해야 한다면 말이다. 보편실천철학은 이론과 마찬가지로 실천철학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보편적 실천을 가르친다. 그러나 그 보편적인 개념들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자연신학과 심리학에 단순한 방식으로 변갈아 가면서 조회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이 두 학문을 깊게 살펴 본 이에게는 명백하다. 보편실천철학은 결론적으로 자연신학과 심리학에서 원리들을 찾는다.

인용은, 볼프가 자연신학과 심리학이 실천철학의 근간임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앞에서 언급한 “마음의 본질 혹은 본성과 그것이 비추는 세계와의 대응 구조(*pro diverso ejus respectu*)”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로 대응하는 것들의 하나가 심리학일 것이고, 다른 하나가 자연 신학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언급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마음이 대응하는 세계가 기독교의 하느님이 다스리는 전통적인 세계가 더 이상 아니라는 점일 것이다.<sup>8)</sup> 일단 그 세계가 “가능한 것들”의 세계에 상정되는 것이고, 이 가능한 것들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자연신학과 심리학이 배정되어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욕구 능력에 대한 논의도 “가능한 것들”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몸과 마음의 관계를 주관하는, 즉 “가능한 것들”의 주인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교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율적 주체로 세우려는 볼프의 계몽 기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소리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논의에서 상술하겠다. 어쨌든, 심리학을 이처럼 실천철학의 한 기등으로 내세우는 볼프의 이런 시도는 마음에 대한 서양의 중세와 근세 초기의 철학논의전통과 비교할

8) 이와 관련해서는, *Oratio de Sinarum philosophia practica* (『중국의 실천 철학을 위한 연설』) (이하 OS 로 약칭함), hersg. v. M. Albrecht, Hamburg 1985(1726)을 참조하시오.

때에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단적인 증거로 예수회가 1586년에 출판된 예수회 대학의 『강의요람(Ratio studiorum)』에 소개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De anima)』에 대한 강의 지침을 소개하겠다.

20. In opinionum delectu generales regulae Theologis praescriptae, quatenus ad Philosophos pertinere possunt, observentur. Illud proprie caveant, ne ab Aristotele recedant, nisi in ijs, quae vel Fidei derogant aequaliter, vel doctrinae cuiquam, quae vbique fere recepta sit, repugnant. Enixe quoque studeant, communiore magis nunc approbatas Philosophorum sententias tueri, quales exempli gratia sunt quae sequuntur; (…)

g. De anima intellectiva, etiam vt intellectiva, tractari Physici est.

h. In vno homine una tantum est anima.

i. Anima rationalis secundum Aristotelem est immortalis, nec educitur de potentia materiae, et est vere proprieque corporis forma.

k. Naturaliter demonstrari potest, animam rationalem esse immortalem, nec vnam in omnibus, et ita naturalem esse corporis formam, vt definitio animae ab Aristotele tradita ei competat vniuocae, secundum gradum etiam intellectuum.

l. Anima rationalis, dum est in corpore et vt est forma corporis, ab eo non dependet, sed vere ac proprie per se subsistit.

m. non negetur, esse aliquam potentiam motivam in substantia animae, per quam anima separata per se movere se possit.

n. Nec Brutum, nec hominis cogitativa discurrunt formaliter.

o. Non datur sensus agens.

p. Ab appetitu sensitivo seu voluntate non minus distinguitur potentia motiva, quam intellectus vel imago; tametsi has potentias ab animae angelivae substantia realiter distinguere conatus sit nullus.

Et aliae id genus opiniones.<sup>9)</sup>

20. 철학자들의 의견을 취함에 있어서는 신학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칙들을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다음 사실에 유의해야

---

9) *Monumenta Germaniae Paedagogica, Schulordnungen Schulbücher und pädagogische Miscellaneen aus den Landen deutscher Zunger*, hersg. v. Karl Kehrbach(1887, Berlin), 140-141.



한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 신앙에 해를 끼치거나 세상 어디서나 받아 들여지는 학설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한 걸음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또한,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인정받는 철학들의 견해를 살피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은 다음과 같다.

(…)

- g. 영혼의 지적인 부분 혹은 지성에 대한 논의는 자연학에 속한다.
  - h. 한 인간에는 오로지 하나의 영혼만이 존재한다.
  - i.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 영혼은 불멸한다고 말한다. 물질적인 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이는 몸의 고유한 형상이다.
  - k. 이성을 담당하는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은 자연학적으로 증명가능하다. 영혼은 모든 이들에게 [같은] 하나가 아니다. 영혼이 몸의 형상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자연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전해지는 영혼의 정의는 하나같이 이 의견에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지성의 단계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다.
  - l. 이성적인 영혼은, 그것이 몸에 자리하고 몸의 형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몸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 진실로 그리고 고유하게 그 자신을 통해서 실제로 존재한다.
  - m. 부정할 수는 없다. 영혼의 실체 안에 작용을 일으키는 어떤 능력이 있음을 말이다. 이를 통해서 영혼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분리시켜 자신을 움직인다.
  - n. 이성이 없는 부분들과 생각은 형상의 규칙에 따라 작용하지 않는다.
  - o. 작용을 일으키는 감각은 주어지지 않는다.
  - p. 지성 혹은 상상에 못지않게 작용을 일으키는 능력도 감각적인 욕구 혹은 의지와는 구별이 된다. 비록 어느 누구도 현실적으로 이 능력들을 정신 혹은 천사의 실체로부터 구별하도록 강제될 수 없음에도 말이다.
- 또한 이에 속하는 다른 의견들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회 대학의 철학 강의에서 *anima* 논의는 자연학의 일부로 다루어졌다는 것이다.<sup>10)</sup> 참고로, 『영혼론』은 지각을 중점적으로 해명

---

10) 참조, 위의 책, 138: 19. Magnopere cauendum est, ne in libris Physicorum Professores tandiu(sic) morentur, vt paucos menses reseruent libris de Anima et Metaphysicae, quae primaria pars est Philosophiae, (...). Anno tandem tertio liber de secundus de Generatione et libri de Anima per quinque circiter menses.

하는 것이지 감정을 다루는 문헌이 아니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적어도 『영혼론』은 볼프가 주장하는 식의 실천철학의 한 원리를 제공하는 텍스트가 아님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서, 마음의 주요 움직임들, 그러니까 희로애락에 오욕(喜怒哀樂愛慾)과 같은 감정에 대한 논의는 『수사학』 제2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런데, 감정 문제와 도덕 판단 사이에 있는 상관성에 대한 논의가 볼프 이전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sup>11)</sup>, 이와 같은 연구의 발전 과정에서 볼프도 한 몫 거들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둔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마음과 몸의 관계를 어떤 조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조화 관계의 소위 주인 노릇이 있다는 점을 언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전거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Loquuntur leges istae perpetuam quandam harmoniam inter modificationes animae et quosdam in corpore existentes motus, ut adeo subinde ex iis, quae in corpore fiunt, colligatur, quaenam animae inesse debeant, quamvis eorum nobis conscii non simus, et vicissim ex iis quae in anima observantur, intelligatur, quaenam in corpore accidere debeant, quamvis ea in sensus incurere nequeant, harmonia animae ac corporis, cum harmonia praestabilita Leibnitii non confundenda, inter principia heuristica psychologica hoc pacto sibi locum vindicante.<sup>12)</sup>

마음의 법칙들은 마음의 다스림과 몸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사이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조화를 말한다. 여기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로부터 도대체 마음에 뭔가가 필연적으로 내재해 있어야 함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것들을 우리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또한 반대로 마음 안에서 관찰되는 것들로부터 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비록 이것들이 우리가 지각할 수 없음에도 말이다. 이런 몸과 마음의 조화는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예정 조화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심리 기제에 대한 발견과 관련된 원리들 사이에서 자신을 위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1) 이와 관련해서는 이를테면 영국 철학자 Anthony Ashley-Cooper, 3rd Earl of Shaftesbury(1671-1731)를 들 수 있다.

12) *PR*, b2.

볼프는 마음에 대한 자신의 접근 시도가 라이프니츠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한다. 한편으로, 몸과 마음의 상호관계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또한 각각에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려 시도한다는 볼프의 언명은 흥미롭다. 그런데, 이성이 신체에 의존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성이 물질적인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예컨대 예수회 대학의 강의 요지였고 이것이 적어도 17세기 유럽 철학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 보니, 물질과 욕망의 관계 문제, 특히 그 욕망의 표현체인 감정의 문제는 학문적 논의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감정 문제가 소위 “마음”에 대한 강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다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예수회 신부 판토하(Pantoja (龐迪我), 1571년-1618년)는 자신의 저술인 『칠극(七克)』에서 ‘욕망’을 극복해야 할 무엇으로 규정한다는 데에서 말이다. 또한, 당시 서양의 철학자들에게 인간은 이성적 동물(rationalis animal)인데, 이는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욕망과 감정”의 존재로서 인간 정의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참고로, 홉스(Hobbes), 아담 스미스, 흄과 같은 철학자들이 감성과 감정 문제에 대한 저술들을 출판한 시기도 바로 이 시기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어쨌든, 몸과 마음 사이에 있는 조화가 있고, 그것의 주인이 있으며, 이를 살피겠다는 볼프의 시도는 계시신앙(religio revelationis)을 중시했던 당대의 시대사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큰 용기를 요구하는 일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처럼 큰 용기를 요하는 계몽기획에 라틴어 『중용』도 나름 한 몫 거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흔적들을 추적하도록 하겠다.

## II. 볼프의 현정사에서 나타나는 라틴어 『중용』의 흔적들

볼프의 『이성심리학』과 『경험심리학』은 마음에 대한 서양의 전형적인

이론 텍스트이다. 이런 이유에서, 볼프의 『경험심리학』과 『이성 심리학』의 본문에는 라틴어 『중용』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접근로를 통해서 그 흔적을 추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은 볼프가 「헤센 공국의 공작에게 바치는 헌정사」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라틴어 『중용』의 흔적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볼프의 헌정사와 라틴어 『중용』 제1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Psychologia Rationalis(1), methodo scientifica pertractata, quae ea, quae De Anima Humana in dubia Experientiae Fide(2) innotescunt, per Essentiam et Naturam Animae explicantur, Ad Intimorem Naturae ejusque Autoris cognitionem(3) profutura proponuntur. (Autore Christinano Wolfio, 1734)

Sublimem philosophiam(4) continet Psychologia rationalis, quae ad interiorem animae nostrae cognitionem manuducit. Sublimia ingenia sublimis rerum sublimium decet scientia ea voluptate animum pascens, quam aliunde sperare non datur. Quodsi cognitio sui(5) nullo non aeo commendata fuit sapientibus; commendanda imprimis erit interior animae, partis nostrum nobilioris, cognitio, cum inde non modo Naturae universae, verum ipsius Autoris ejusdem, Numenis sapientissimi ac potentissimi, notitiae lux quaedam inexpectata affulgeat et praeterea virtuti singulare praesidium(6) accedat, quod nemo novit nisi expertus(7). Ecquid vero jucundius, quid desideratius, quam Naturam rerum, opus illud admirabile, quod sui cognoscendi gratia effecit Artifex summus(7), intime perspicere, ac in eo veluti in speculo(8) ipsummet Artificem venerabunda intueri? Nullus igitur dubit0, Princeps Serenissime, eam philosophiae partem, quae tam sublimia tradit, in conspectum Tuum proferre. Etenim Summus rerum arbiter tam sublimes Serenitati Tuae concessit animi dotes et eam comitem esse jussit corporis formam, quae spiritum excelsum latere non sinit intuentibus, ut in admirationem venerabundam toti rapiantur. Nihil vero tam sublime a Natura datum, quod non industria augeas, amplifices atque perficias, ut jam in tenera adhuc juventute illarum virtutum fallacia edas documenta, quae in Rep. prudenter ac feliciter administranda omne ferunt punctum. Imprimis etiam avitus ille scientiarum profundiorum amor, quibus Naturae ac Artis arcana revelantur, tam altas in animo

egit radices, ut quotquot ad eas excolendas animum appellunt, certissimum sibi polliceri debeant.(9) Toti orbi erudito, Princeps Serenissime, haud fallacis spei indicium minime fallax edes, ubi quod humillime offero opus gratioso vultu intueri dignatus fueris; quo cum autorem alias respicere volueris, fore ut voti compos reddar haud vana spe lactor. In Te Spes Hassiae omnis: quae ne fallat, Deus Ter Optimus Maximus SERENITATEM TUAM salvam et incolumem esse jubeat et eminentibus quibus jam excellis, virtutibus nova in dies incrementa addat. Haec mecum vovet Hassia, vovet Academia Marburgensis, vovent boni omnes! Tu vero DOMINE CLEMENTISSIME, Tuam in me gratiam perennem esse jubeas, qua mihi nihil antiquius esse debere intelligo.

SERENITATIS TUAE  
Humillimus cultor Christianus Wolfius.<sup>13)</sup>

심리학이란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한 학문이다. 이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그러나 경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명치 않은 믿음의 형태로 포착되는 것들에 대한 학문으로, 마음의 본질과 *natura*를 해명하는 것들로, *natura*에 대한 내밀한 인식과 그것의 주인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 유익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학문이다. (저자, 크리스티안 볼프, 1734년)

심리학은 우리 마음에 대한 내밀한 인식으로 이끄는 숭고한 철학입니다. 숭고한 것들에 대한 숭고한 앎이 숭고한 재능에 어울리는 일인데, 이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바랄 수 없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정신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하는 것은 현자의 일로 추천되었던 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더 고귀한 부분인 마음에 대한 내밀한 인식은 추천되어야 할 만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편적인 본성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력한 신의(神意)인 주인 자신을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문득 인식하게 만드는 어떤 빛이 서광을 비추고, 여기에 덕에 대한 각각의 파수꾼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직접 경험한 사람 이외에는 결코 알수 없는 그런 파수꾼입니다. 진실로 그 어떤 것이 더 즐겁고 더 바랄만한 것이겠습니까? 사물의 *natura*를,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서 최고의 기술자(*artifex*)가 만들어놓은 저 경이로운 작용을 내밀하게 살피는 것보다, 또한 거기에서 마치 경이로운 거울에서 기술자 자신을 내밀하게 살피는 일보다 말입니다. 저는, 지고의

13) *PR*, a2-a 6.

명철한 왕이시여, 이토록 숭고한 것들을 알리는 철학의 일부를 전하에게 바치는 것을 추호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최고 판단자가 전하의 명철함에 정신의 숭고한 자질들을 부여했고, 그 수행자를 몸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수행자는 탁월한 정신이 감추어져 있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내밀함을 살피는 이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경이로움과 함께 단박에 포착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Natura*가 제공한 것들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도 저토록 숭고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해서 전하께서 인위적으로 권위를 부여하고, 강조하며, 이렇게 하시려고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은 아직은 어리고 막 자라나는 소년기를 벗어난 저 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국가를 지혜롭고 융성하게 이끄는 것과 관련된 모든 점들을 전파함에 있어서 한 치 거짓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심오한 학문에 대한 조상 대대로의 사랑이, 이 앞들로 말미암아 *natura*와 학문의 신비스런 비밀들이 드러나는바, 바로 그 사랑이 정신에 깊숙하게 내린 뿌리들을 일깨우고, 그리하여 그 뿌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뿌리들을 맑게 닦도록 추동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가장 확고함을 약속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고의 명철하신 전하, 세계 전체를 가르치는 희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담고 있는 증표를 세상에 출판하시는 것입니다. 전하를 기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고의 겸손함으로 제가 바치는 이 책은 자애로운 용안으로 살피게 될 전하의 품격에 어울릴 작품입니다. 이를 통해서, 행어 전하가 다른 기회에 이 작품을 다시 살피기를 원하신다면,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맹세를 지킨 자이고 결코 헛된 희망에 빠진 자가 아님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전하는 헤센의 모든 희망입니다. 이 희망이 헛되지 되지 않도록, 세 번 더 최상인 최고의 하느님이 전하의 명철함을 무사하고 무탈하게 지켜주시길 그리고 이미 탁월한 덕성들에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덕들을 더해주시길 기원합니다. 헤센이 저와 함께 이를 기원합니다. 마부룩 아카데미가 기원합니다. 선한 모든 이들이 기원합니다. 지고의 자애로운 하느님! 제가 알기로는 당신의 은총보다 더 오래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아는 바, 바로 그 영원한 은총을 저에도 베풀어주시길!

지고의 겸손함으로 당신의 명철함을 받드는  
크리스찬 볼프가 삼가 올림

(라틴어 『중용』 제1장)

CONFUCIUS SINARUM PHILOSOPHUS

SIVE SCIENTIA SINENSIS LATINA EXPOSITA,

*Studio et opera* PROSPERI INTORCETTA, CHRISTIANI HERDTRICH,

FRANCISICIS ROUGEMONT, PHILIPPI COUPLET, *Patrum Societatis, Jussu LUDOVICI MAGNI* (…).

*Scientiae Sinicae Liber Secundus*, cap. 1 (이하는 *Confucius*로 약칭함)

(f.2. p.1. §.1.) Id quod a caelo est homini inditum dicitur natura rationalis(1): quod huic conformatur naturae et eam consequitur, dicitur regula, seu consentaneum rationi, restaurare quoad exercitium hanc regulam se suaque per eam moderando, dicitur institutio, seu disciplina virtutum. (§.2.) Dicta Regula cum sit naturae rationali intrinseca nunquam potest, nec vero debet vel uno temporis momento abesse aut separari ab homine; quod si posset aliquando abesse aut separari, jam non esset regula seu ratio a coelo naturae insita. Atque haec est causa cur perfectus vir adeo semper sollicite attendat sibi, atque invigilet in his etiam quae non percipiuntur oculis, uti sunt minimi motus animi; cur itidem adeo timeat et paveat in his etiam quae non percipiuntur auribus ut ita, cum aliquid faciendum fuerit, ne momento quid deflectat a norma rectae rationis sibi impressa. (f.2. p.1. §.1.) Motus namque animi id(d sic) fere sunt, quod non apparet, quia reconditi et sibi soli noti; sunt item id quod non est manifestum, quia admodum subtiles et minimum quid; ideoque perfectus vir tam sollicite invigilat cordis sui secreto et cautus est in internis quae solus ipse intuetur; quo deinde fit, ut qui aliis reconditi et abstrusi sunt, intimi scilicet cordis recessus, ei tamen soli pateant; qui item subtilissimi sunt ac percipi vix possunt, minutissimi scilicet animi motus, sive ad bonum, sive ad malum, ei tamen soli manifesti omnino sint. (§.2.) Cum autem radix passionum intima sit naturae hominis, vel potius ipsamet natura sit ista radix; haec autem in actus suos vel passiones prorumpat assidue, summa cum vigilantia attendit sibi Vir perfectus ut has, ipsius quoque naturae fraeno, quatenus haec rationis et discretionis principium est, moderetur. Itaque passiones animi, ut sunt gaudium ex prosperis, ira ex adversis, tristitia ex jactura, hilaritas seu laeta fruitio rei obtentae, priusquam pullulent prodeantque in actum dicuntur medium seu esse in medio, quia sunt adhuc indifferens quid ad excessum vel defectum; at ubi pullularunt, et omnes attigerunt rectae rationis dictamen, dicuntur consentaneum, seu quidam passionum inter se et cum ipsa ratione concentus. Et quidem, cum sunt in medio; orbis universi magnum principium ac omnium bonorum actionum fundamentum dicuntur; cum sunt rationi consentanea, orbis universalis regula, seu Regia humani generis via dicuntur.<sup>14)</sup>

하늘이 인간에게 불어 넣어 준 것을 일컬어 *natura rationalis*(性, 이성적 본성)이라 한다. 이것(性)에 따라 형성된 *natura*와 그 *natura*를 따르는 것을 일컬어 *regula*(道, 법칙)라 한다. 혹은 이성에 합치되는 자리로 되돌아가기를 일컬어, 이 법칙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일들을 조절하는 훈련인 한에서, *institutio*(教)라 한다. 혹은 덕들의 가르침이라 한다. 법칙(道)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본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니 인간으로부터 한 순간도 멀어질 수도 분리될 수도 없으며, 아니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만약 한 순간이라도 멀어지거나 분리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법칙이 아니다. 혹은 하늘에서 내려진 *natura*의 원리라고 부르든, 그것은 더 이상 원리가 아니다. 바로 이것이 이상적인 남자(君子)는 따라서 항상 깨어서 자신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이고, 아울러 이상적인 남자는 눈으로 보이지 않은 일들에서, 예컨대 마음의 미묘한 움직임들에서 항상 주의를 놓지 않는다. 이것이 또한 이상적인 남자가 귀로 들리지 않는 일들에서도 삼가고 두려워하는 이유다. 뭔가를 행할 때에 한 순간이라도 자신에게 찍힌 올바른 이성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음의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깊숙하게 감추어져 있고 따라서 자신에게만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움직임이든 극도의 미세한 것이고 미묘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적 남자는 항상 깨어서 자신의 마음의 은밀한 곳을 주시하고, 그 자신만이 홀로 들여다보는 내밀한 일들에 대해서 경계한다. 이런 까닭에,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한 내밀한 일들은,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고 감춰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자기 자신에게는 명백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들이다. 마찬가지로 아주 미세해서 거의 지각되지 않을 정도라 할지라도, 마음의 미세한 움직임들은, 그것이 좋음으로 향하든, 나쁨으로 향하든,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만끔은 명백한 것들로 드러나 보인다. 하지만 감정들의 은밀한 뿌리는 인간의 *natura*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에, 아니 차라리 *natura* 자체가 그 뿌리이기에, 그런데, 이 뿌리는 끊임없이 자체의 행동들로 혹은 감정들로 표출된다. 이런 까닭에 이상적인 남자는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경계한다. *natura* 자체의 재갈로, *natura*가 합리와 분별의 원리로 작동하는 한에서, 자신을 이와 같은 움직임들을 제어한다. 따라서 좋은 일들에서는 기쁨이, 나쁜 일들에서는 분노가, 잃음에서는 슬픔이, 즐거움 혹은 얻음으로부터 행복한 누림이 나오는데, 이런 마음의 감정들이 싹을 내밀어 행동으로 표출하기 전의 상태를



일컬어 메디움(中)이라 하고 혹은 메디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과도함과 부족함의 어떤 차별도 생겨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썩어 피어나고, 그리고 모든 감정들이 적도(適度)에 머무르게 되면, 이런 상태들을 일컬어 콘센타네움(和)라고 한다. 혹은 감정들 사이에서 있는 혹은 이성 자체와의 어떤 어울림이라고 한다. 이런 까닭에 실은 메디움에 머물러 있을 때, 이를 일컬어 세계 전체의 원리이자 모든 훌륭한 행동들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적도에 일치할 때, 이를 일컬어 세계 전체의 법칙들 혹은 인류의 왕도라고 일컫는다.

볼프의 현정사에서 포착되는 라틴어 『중용』의 흔적은 다음과 같다.

(1) *Psychologia Rationalis.*

『이성심리학』으로 옮길 수 있는 이 표현은 얼른 라틴어 『중용』의 *natura rationalis*(性)을 연상케 한다. 이와 관련해서, 볼프는 *Psychologia rationalis*가 *Summus arbiter*(최고의 판단자가 인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도 라틴어 『중용』의 *Id quod a caelo est homini inditum*(하늘이 부여한 것)이라는 구문을 떠올리게 만든다.

(2) *dubia Experientiae Fide*

이 표현은 “경험의 영역에서 분명치 않은 믿음의 형태로 포착되는 것” 정도의 의미다. 이를 통해서, 볼프는 자신이 탐구하려는 연구 대상을 제시한다. 이는 『이성 심리학』의 원래 서명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그러나 경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명치 않은 믿음의 형태로 포착되는 것들에 대한 학문으로, 마음의 본질과 *natura*를 해명하는 것들로, *natura*에 대한 내밀한 인식과 그것의 주인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 유익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학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 대상 설정과 서명의 내용도 라틴어 『중용』의 “마음의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깊숙하게 감추어져 있고 따라서 자신에게만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움직임이든 극도의 미세한 것이고

미묘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구문을 환기시킨다. 이는 다음의 원문 비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볼프	『중용』
quae De Anima Humana in dubia Experientiae Fide innotescunt, per Essentiam et Naturam Animae explicantur, Ad Intimorem Naturae ejusque Autoris cognitionem profutura proponuntur.	Motus namque animi id fere sunt, quod non apparet, quia reconditi et sibi soli noti; sunt item id quod non est manifestum, quia admodum subtiles et minimum quid; (...)

(3) *Ad Intimorem Naturae ejusque Autoris cognitionem.*

이 표현은 “*natura*에 대한 내밀한 인식과 그것의 주인에 대한 인식”을 뜻한다. 여기에서 *natura*는 “마음의 본성”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인”은 마음의 주인을 지칭한다. 이를 통해서 볼프는 자신이 탐구하려는 목적 대상이 “마음의 주인”임을 천명하는데, 그의 “마음의 주인”에 대한 생각은 예를 들면, 데카르트의 *cogito*적 *ego*와는 분명 다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데카르트의 *cogito*는 존재론적인 지평에서 설정되는 자아 개념이지만, 볼프의 주인 개념은 실천 철학의 지평에서 성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볼프가 마음에 대한 내밀한 인식을 촉구하는 것은 도덕적 실천과 인격의 완성을 위한 것이고, 그가 주인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 주인 의식은 계몽시대의 주체 개념에 가까운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데카르트의 그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볼프의 이런 문제 인식도 라틴어 『중용』의 한 대목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상적인 남자(君子)는 따라서 항상 깨어서 자신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이고, 아울러 이상적인 남자는 눈으로 보이지 않은 일들에서, 예컨대 마음의 미묘한 움직임들에서 항상 주의를 놓지 않는다. 이것이 또한 이상적인 남자가 귀로 들리지 않는 일들에서도 삼가고 두려워하는 이유다. 뭉가를

행할 때에 한 순간이라도 자신에게 찍힌 올바른 이성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4) *Sublimem philosophiam.*

볼프는 자신의 『이성심리학』의 내용을 “숭고의 철학”이라고 규정한다. 이 “숭고” 개념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볼프의 『이성심리학』을 파악하는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볼프의 “숭고” 개념이 17세기 출판되었던 위-롱기누스의 『숭고론』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위-롱기누스의 『숭고론』에 등장하는 *to hypsos*는 기본적으로 문체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to hypsos*의 핵심 개념은 *extasis*(소위 “유체이탈”과 같은 공간 이동의 황홀한 경험)이다. 한마디로, 외부의 강력한 객체에 의해서 사로잡혀 어찌할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엑스타시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볼프는 마음의 주인을 강조하고 있다.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주체로서의 자아를 세우는 것이 볼프의 “숭고”에 깔린 기본 생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볼프가 『이성심리학』 초두에서 피력하는 “숭고” 개념과는 위-롱기누스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하지만, “숭고” 기본 생각은 위-롱기누스의 그것과 어떤 면에서는 유사하다. 즉, 마음에 내재해 있는 숭고한 능력을 알아보는 일은, 그런데, 인간 본성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점에서 개념의 외연은 유사하다는 소리다. 볼프도 숭고의 힘이 인간의 본성 혹은 마음의 능력에 내재해 있고, 이를 알아보는 것이 숭고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것이 볼프는 “심리학”을 “숭고의 철학”이라 명칭하게 된 이유였을 것이다. 하지만, 숭고라는 표현은 당시 경건주의가 대세를 이루던 독일의 지성 풍토에서는 일종의 금기어였다. 인간 본성을 뛰어넘어 예컨대 마음의 본성을 본다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도전이고 교회에 반기를 드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볼프가 헤센 공국의 프리드리히 공작을 “숭고한” 통치자로 찬양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숭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작의 권위를 이용하려는 볼프의 고도의

계산이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찌되었든, 볼프의 “숭고”에 대한 생각은 반 세기가 지나서 하나의 거대한 문화 운동으로 확산되었는데, 낭만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볼프와 낭만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문헌 고증이 요청된다. 그런데, 볼프의 “숭고” 개념의 이해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토르체타가 『중용』을 “숭고한 철학”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이다. 전거는 아래와 같다.

[12] Alterius libri *Chum yum* dicti titulus et argumentum est, medium sempiternum seu medii vel aureae mediocritatis constantia. *Çu Su* Confucii nepos ex filio, *Cemciique* discipulus, idemque Magister *Memcii* hunc vulgavit, et quaedam de suo addidit; sed et desiderantur multa; sic ut fragmentorum verius quam libri speciem habeat, et quia doctrinae quae traditur sublimitas quandoque naturae ipsius limites videtur excedere, eum Sinae Magistri tanquam subobscurum captuque difficilem, cum numero secundus sit, postremo tamen loco in Scholis exponunt.<sup>15)</sup>

[12] 다음 권은 『중용』이라 불리는 책이다. 책의 서명은 ‘늘 중심을 잡음’ 혹은 ‘중심의’ 혹은 ‘황금 균형을 유지하며 항상성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편찬자는 공자의 손자 자사다. 자사는 증사의 제자이고, 마찬가지로 맹자의 스승이기도 하다. 자신의 것에서 일부를 덧붙였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결손되어 전해진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의 모양을 취하기보다는 단편들의 모음집으로 보일 정도다. 전해지는 바의 가르침의 숭고함은 본성 자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나의 스승들도 이 책을 파악하기 어렵고 은미한 책으로 인정하고, 순서에 있어서는 두 번째이지만, 학교에서는 마지막 자리에 놓고 가르친다.

(5) *cognitio sui*, (6) *virtuti singulare praesidium*, (7) *quod nemo novit nisi expertus*.

(5) 자신에 대한 인식, (6) 덕에 대한 각각의 파수꾼, (7) 이는 직접 경험한 사람 이외에는 결코 알 수 없는 등의 표현은 라틴어 『중용』의 “왜냐하면,

15) *Confucius, Liber secundus, xxi.*

깊숙하게 감추어져 있고 따라서 자신에게만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움직임이든 극도의 미세한 것이고 미묘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적 남자는 항상 깨어서 자신의 마음의 은밀한 곳을 주시하고, 그 자신만이 홀로 들여다보는 내밀한 일들에 대해서 경계한다. 이런 까닭에,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한 내밀한 일들은,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고 감춰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자기 자신에게는 명백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들이다<sup>16)</sup>”로 연결된다. 참고로 라틴어 『중용』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quia reconditi et sibi soli noti; sunt item id quod non est manifestum, quia admodum subtiles et minimum quid; ideoque perfectus vir tam sollicito invigilat cordis sui secreto et cautus est in internis quae solus ipse intuetur; quo deinde fit, ut qui aliis reconditi et abstrusi sunt, intimi scilicet cordis recessus, ei tamen soli pateant.*

여기에서 (5)의 *cognitio sui*는 *cordis sui*에, (6)의 *virtuti singulare praesidium*는 *ideoque perfectus vir tam sollicito invigilat cordis sui secreto et cautus est in internis quae solus ipse intuetur*에, (7)의 *quod nemo novit nisi expertus*는 *ut qui aliis reconditi et abstrusi sunt, intimi scilicet cordis recessus, ei tamen soli pateant*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 이외에는 결코 알 수 없는 (*quod nemo novit nisi expertus*)” 구문에 특히 눈길이 가는데, 볼프가 이 구문을 *sibi conscius*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개념으로 바꾸어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sibi conscius*는 『경험심리학』의 전문학술용어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한 전거는 다음과 같다.

16) *Psychologia empirica, methodo scientifica pertractata, qua ea, quae de anima humana indubia experientiae fide innotescunt, per essentiam et naturam animae explicantur; et ad intimiorem naturae ejusque auctoris cognitionem profutura propununtur*(Francofurti et Lipsiae, 1738) (이하 PE로 약칭함), 2.

Quae ad Psychologiam empiricam spectant attentione ad ea facta, quae nobis consciis in anima nostra fiunt, innotescant.

경험심리학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 자신에게만 알려져 있는 바의 사실들을 집중해서 밝히는 학문이다.(『경험심리학』 서문 제2장)

*sibi conscius* 혹은 *nobis conscius*은 오늘날은 “양심”을 뜻한다. 하지만, *sibi conscius*는 내적 양심이라는 도덕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볼프에 있어서는 자의식 혹은 자기인식(*cognitio sui*)에 가깝다. 여기에서도 약간의 주의가 요청되는데, 이 자기 인식은 독일어의 *selbst-bewusstsein*으로 옮길 수 있는데, 볼프의 “자기 인식” 개념은 아마도 라틴어 『중용』의 “따라서 이상적 남자는 항상 깨어서 자신의 마음의 은밀한 곳을 주시하고, 그 자신만이 홀로 들여다보는 내밀한 일들에 대해서 경계한다(*ideoque perfectus vir tam sollicitè invigilat cordis sui secreto et cautus est in internis quae solus ipse intuetur*)”에 가까운 개념이다.

(7) *Artifex summus*, (8) *in speculo*

볼프가 말하는 최고의 기술자가 하는 일은 어떤 경이로운 작용을 내밀하게 살피는 일이라고 한다. 마치 거울의 작용과 같다고 한다. 그런데, 볼프가 말하는 *artifex summus*는 『중용』의 *vir perfectus*를, *speculum*은 라틴어 『대학』의 *seu limpidissimum speculum*(아주 투명한 거울)을 연상시킨다.

(9) *Nihil vero tam sublime a Natura datum, (….) certissimum sibi polliceri debeant.*

이 구문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natura*가 제공한 것들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도 저토록 숭고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 그 뿌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뿌리들을 맑게 닦도록 추동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가장 확고함을 약속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볼프가 헤센 공국의 프리드리히 공작에게 올리는 찬사이자 덕을 맑게 닦으라

는 권고이다. 그런데, 볼프의 권고를 들을 때에 라틴어 『대학』이 떠오르는 것은 우연일까? 어찌되었든 라틴어 『대학』의 제1장이다: “지도자들이 알아야 하는 큰 가르침은 하늘에서 불어넣어 준 *natura rationalis*(明德)을 닦고 가꾸는 데에 있다. 이는 곧, 혹은 아주 투명한 거울처럼, 사악한 욕구의 더러움들을 씻어내고 원래의 밝음으로 되돌아 가기 위함이다. 이어서 그것은 인민을 새롭게 하거나 다시 세움에 있다(新民). 혹은 이도 곧 자신을 모범으로 삼아서 격려로 삼기 위함이다. 마침내 그것은 굳건하게 머무름에 혹은 최고의 선에 자리함에 있다(至善).” 여기에서 “닦아야 한다”는 언표가 눈에 띄는데, 이에 해당하는 『대학』의 원문은 인용의 밑줄 친 부분이다:

1 Magnum adeoque virorum Principium, 2 sciendi 3 institutum 4 consistit in expoliendo seu excolendo 7 rationalem 8 naturam a coelo inditam, ut scilicet haec, ceu limpidissimum speculum, abstersis pravorum appetituum maculis, ad pristinam claritatem redire possit. Consistit deinde in 9 renovando seu reparando 10 populum, seu ipsius scilicet exemplo et adhortatione. 11 Consistit demum in 12 sistendo firmiter, seu perseverando 13 in summo bono. f.l p.1 §.1.17)

또한, “그 뿌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뿌리들을”에 해당하는 라틴어 원문은 *tam altas in animo egit radices*이다. 이 “뿌리” 언명도 곧장 라틴어 『중용』의 “감정들의 은밀한 뿌리는 인간의 *natura*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에, 아니 차라리 *natura* 자체가 이 뿌리이기에, 그런데, 이 뿌리는 끊임없이 자체의 행동들로 혹은 감정들로 표출된다 (*Cum autem radix passionum intima sit naturae hominis, vel potius ipsamet natura sit ista radix; haec autem in actus suos vel passiones prorumpat assidue*)”로 연결된다.

여기까지가 볼프의 <헌정사>에서 찾을 수 있는 라틴어 『중용』과 『대학』의

17) Confucius, *liber primus*, 1-2.

흔적들이다. 적어도, 위의 진술한 내용만으로도, 볼프의 심리학 논의에 라틴어 『중용』이 상당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음이 분명하다. 남은 문제는 볼프가 참조한 번역본이 누구의 것인가에 물음인데, 이와 관련해서 알브레히트(M. Albrecht)는 볼프가 참조한 텍스트는 노엘(Fr. Noël)의 번역본이라고 주장한다.<sup>18)</sup> 물론, 볼프 자신도 『중국의 실천철학을 위한 연설』에서 쿠플레가 파리에서 편집-출판한 라틴어 『중국인 철학자 공자』를 읽지 않았다고 밝힌다.<sup>19)</sup> 하지만,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볼프가 『이성심리학』과 『경험심리학』을 저술할 시기에는 쿠플레가 편집한 라틴어 『중국인 철학자 공자』를 읽었음이 확실하다. 이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hoc vero de Sinensibus commemorat Philippus Couplet, Soc. Jesu, Sinensis Missionis in urbem Procurator, in praefatione ad Tabulam Chronologicam Monarchiae Sinicae Parsiis 1686.<sup>20)</sup>

이와 한 중국인의 생각은 중국 선교의 북경도시 책임자였던 필립 쿠플레가 1686년에 파리에서 출판된 『중국인 철학자 공자』 서문에서 언급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볼프가 읽은 라틴어 『중용』이 누구의 번역인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최근에 파리 국립 도서관의 고문헌 자료실에서 지금까지 학계에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는 필사본 한 개를 찾아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인 철학자 공자』의 앞머리에 실려 있는 「루이14세에게 바치는 헌사」는 쿠플레가 지었고, 「서문」의 저자는 인토르체타였으며, 제2부의 저자는 쿠플레였고, 「공자의 생애」의 저자는 이그나치오 다 코스타(Ignacio da Costa, 1599-1666)였으나 나중에 인토르체타가 보충한 것이었다. 그리고

18) 참조, *OS*, XXIV.

19) 원문은 다음과 같다. *OS*, 208-10: Cum haec scriberem, ignorabam, aliquot illorum librorum jam ante fuisse in latinum versos: neque enim Confucium Sinarum Philosophum parisiis editum(Not.1).

20) *PE*, 106-107.



문제의 라틴어 『중용』의 번역자는 인토르체타였다. 파리 필사본의 번호는 *Cod. Par. Lat.* 6277인데, 이에 대한 문헌학적인 보고는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소개하겠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어쨌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와 같은 문헌학적인 흔적만으로는 심리학에 대한 볼프의 생각과 라틴어 『중용』 사이에 있는 관계를 입증함에 있어서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볼프가 『경험심리학』에서 피력하는 감정에 대한 그의 생각을 살펴 보자. 먼저 감정에 대한 그의 정의와 풀이는 다음과 같다.

§603. *Affectus sunt actus animae, quibus quid vehementer appetit, vel aversatur, vel sunt actus vehementiores appetitus sensitivi et aversationis sensitivae.*

§605. *Affectus ex confusa boni et mali repraesentatione oriuntur. Sunt enim actus vehementiores appetitus sensitivi et aversationis sensitivae(§603). Sed appetitus sensitivus oritur ex idea boni confusa(§580), aversatio autem sensitiva ex idea mali confusa (§582).*

§606. *Quoniam per voluptatem, quam ex re quadam percipimus, nobis eam confuse repraesentamus tanquam bonam(§561) et per taedium, quod ex eadem percipimus, tanquam malam(§573).<sup>21)</sup>*

제603장. 감정은 마음의 움직임이다. 이를 통해서 마음은 뭔가를 강하게 욕구하거나 싫어한다. 혹은 욕구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의 더 강력한 움직임이다.

제605장. 감정은 좋음과 나쁨의 혼합된 표상에서 일어난다. 즉 욕구와 싫음의 더 강력한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603) 욕구는 좋다는 생각에서 생겨난다. (§580) 싫음은 나쁘다는 생각에서 생겨난다. (§582)

제606장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혼합된 상태에 있는 것을 어떤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즐거움을 통해서는 좋음으로 표상하고(§561), 어떤 것으로부터 싫은 것을 통해서는 나쁨이라고 표상한다(§573).

감정에 대한 볼프의 풀이는 곧장 라틴어 『중용』의 “좋은 일에서는 기쁨이, 나쁜 일들에서는 분노가, 잃음에서는 슬픔이, 즐거움 혹은 얻음으로부터 행복한 누림이 나오는데, 이런 마음의 감정들이 싸울 내밀어 행동으로 표출하

21) *PE*, 457-459.

기 전의 상태를 일컬어 메디움(中)이라 하고 혹은 메디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과도함과 부족함의 어떤 차별도 생겨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싹이 피어나고, 그리고 모든 감정들이 적도(適度)에 머무르게 되면, 이런 상태들을 일컬어 콘센타네움(화)라고 한다. 혹은 감정들 사이에서 있는 혹은 이성 자체와의 어떤 어울림이라고 한다”를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볼프의 제606장은 라틴어 『중용』의 “좋은 일들에서 는 기쁨이, (...) 연음으로부터 행복한 누림이 나오는데”의 언명을 떠올리게 만든다. 또한, 볼프의 제605장의 “감정이란 표상에서 생겨난다. 표상은 좋음과 나쁨이 혼합된 것이다”는 『중용』의 “이런 마음의 감정들이 싹을 내밀어 행동으로 표출하기 전의 상태를 일컬어 메디움(中)이라 하고 혹은 메디움에 머물러 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과도함과 부족함의 어떤 차별도 생기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이다”를 환기시키다. 마지막으로, 볼프의 제603장은 라틴어 『중용』의 “그러나 싹이 피어나고, 그리고 모든 감정들이 적도(適度)에 머무르게 되면, 이런 상태들을 일컬어 콘센타네움(화)라고 한다. 혹은 감정들 사이에서 있는 혹은 이성 자체와의 어떤 어울림이라고 한다”를 연상토록 만든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볼프와 라틴어 『중용』 사이에 있는 유사함은 작은 우연은 아닐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물론, 엄밀한 논구를 해보야 하겠지만, 다음의 네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볼프가 감정을 선이나 악인 아닌, 맥락 조건에 따라 좋음(好)으로 혹은 싫음(惡)의 담지자로, 즉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무엇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볼프의 이런 생각도 감정을 중립적으로 보는 라틴어 『중용』과 유사하다. 요컨대, 감정으로 표상되기 이전의 “어떤 상태”가 있는데, 그것의 기본 성향은 좋아함과 싫어함과 함께 작동하며, 그 작동이 외부와의 관계에 따라 마음의 움직임으로 표출되고 그 표출의 결과로 나타난 꼴이 감정이라는 것이 볼프의 기본 생각이기 때문이다.

둘째, 볼프는 affectus와 appetitus를 구분하는데, 전자를 감정으로, 후자를 욕구로 부른다. 그런데 욕구는 감정보다는 약한 움직임의 상태이고, 아직은

움직임으로 포착되는 상태는 아닌 단계이다. 어찌면, 볼프가 말하는 appetitus 는 『중용』의 medium 상태, 아직 좋음과 나쁨이 결합하기 전의 “미발(未發)”상태를 해당하고, affectus 나 는 외적 맥락 조건에 따라 “기발(既發)”해버린 상태, 감정으로 표출된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볼프가 마음의 움직임을 ‘크기’ 혹은 ‘세기’로 접근한다. 그런데, 볼프가 말하는 ‘감정의 강도’ 혹은 ‘세기’에 대한 시선도 라틴어 『중용』의 ‘과도함과 부족함’을 생각나게 한다. 물론, 이 문제는 약간의 섬세한 주의가 요청된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겠다. 어쨌든, 볼프도 궁극적으로는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성심리학』에서 주장한다는 점에서, 라틴어 『중용』의 ‘中和’와 구조적으로 유사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라틴어 『중용』의 “어떤 차별도 생겨나지 않는 상태”는, 즉 medium의 상태는 볼프가 말하는 “선과 악의 생각과” 결합되기 이전의 상태, 즉 아직 표상을 통해서 어떤 특정 꼴을 지니지 않은 감정과 욕구 상태에 해당한다. 이쯤 되면, 적어도 볼프의 *psychologia* 개념이 『중용』의 *natura* 개념이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Ⅲ. 볼프 자신의 ‘고백’

제2장의 논의에서 볼프의 『헌정사』에서 나타나는 라틴어 『중용』의 흔적을 추적하였다. 문헌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흔적들만으로도 볼프의 *psychologia* 개념이 라틴어 『중용』의 “*natura*(性)” 개념과 연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흔적들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다 구체적인 단서가 필요한데, 다음은 볼프가 1721년 독일 할레(Halle) 대학의 부총장직 사임 고별 강연(『중국의 실천 철학에 대한 연설』)의 한 대목이다.

objectivam vocarunt Scholastici, et antiquissimi agnoverunt Philosophi, et Theologi acriter propugnarunt. Notiora haec sunt, quam ut exemplis eadem confirmari sit opus. Constat vero, moralitatem objectivam determinatam esse per actionum convenientiam et disconvenientiam cum ipsa natura rationali. Unde Grotius lib. 1.c. 1.§10. p. m. 6. *jus naturae* definit *per dictatum rectae rationis, indicans actui alicui ex ejus convenientia aut disconvenientia cum ipsa natura rationali inesse moralem turpitudinem aut necessitatem moralem, ac consequentur ab auctore naturae Deo talem actum aut vetari aut praecipere*. Hanc sententiam solidam ergo probo, atque hinc, quae tanquam rationi consentanea in scientia morum praecipuntur, ex *convenientia eorum cum natura humana* adjudicanda esse inculco. Neque Sinarum dogmata respuunt hunc lapidem Lydium. Ipse enim Confucius convenientiam cum natura rationali actionum normam agnoscit. Diserte enim in Libro de *immutabili medio* qui est Scientiae Secundus, f.40. pronunciat, quod naturae rationali conformatur, illud esse regulam, juxta quam actiones dirigendae, idem esse rationi consentaneum, et virtutis disciplinam in eo consistere, ut nos et nostra per eam moderemur. Examinamus igitur Sinarum principia philosophiae practicae juxta eam normam, quam ipsemet Confucius nobis commendat et ad quam attendit, dum, quae ab antiquis sancita, dicta et facta fuerant, ad examen revocavit, antequam eadem suis moribus exprimere teneret.<sup>22)</sup>

(39) 교부학자들이 객관적인 도덕이라 부른 것들 가운데에는 행동들에 대한 명예와 내적인 수치에 대한 논의는 고대 철학자들도 알고 있는 바이다. 이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도 치열하게 자신의 영역이라 방어했던 바이다. 이는 사례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보다 더욱 분명하게 잘 알려진 것들이다. 진실로 객관적인 도덕이란, 행위가 이성적 본성(natura)자체와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는지의 여부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입각한 그로티우스는 자신의 책 제1권 1장 10절, 내 책에서는 6쪽에서, 자연적 권리를 이렇게 규정한다. 즉, 자연적 권리란 올바른 이성의 자기 표명이다. 이는 이성적 본성 자체와 일치 하는가 혹은 아닌가에 따라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수치스러운 지가 드러난다. 이는 필연적으로 도덕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하다. 자연의 창조자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행동은 해서는 안 되고 어떤 행동들은 해도 되는지가 뒤따라 나온다. 나는 그로티우스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나는 도덕 교육에 있어서 이성에 합치하는 것이라

---

22) OS, 128-130.

교육되어 왔던 것들, 바로 그것들이 인간 본성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의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천명코자 한다. 중국의 가르침들도 이 ‘리디아의 시금석’에 어긋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자 자신이 이성적 본성과의 일치로 행위들의 규범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공자는 『중용』이라는 책에서, 『중국인 철학자, 공자』의 『두 번째 학문』의 제 40쪽에서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밝힌다. 이성적 본성에 합치하는 것, 그것이 법칙이고, 이 법칙에 따라 행위들을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이성을 따르는 것인데, 이에 따라 덕에 대한 규칙을 세워야 한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행위들을 이 규칙을 통해서 행 하도록 말이다. 그러면, 이제는 따라서 중국의 실천 철학의 원리들을 공자 자신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저 규범에 따라, 그리고 그가 자신의 행동 양식을 통해서 실천으로 보이기 위해 몸으로 체득하기 전에, 그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고시대부터 내려온 신성한 말들과 일들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가 주목하는 것에 따라 검토하겠다.

흥미롭게도, 볼프가 말하는 “이성적 본성에 합치하는 것, (...) 이 규칙을 통해서 규율하도록 말이다”의 구문은 라틴어 『중용』에 적어도 내용적으로는 정확히 일치한다. 라틴어 『중용』의 해당 자리는 다음과 같다.

하늘이 인간에게 불어 넣어 준 것을 일컬어 *natura rationalis*(性, 이성적 본성)이라 한다. 이것(性)에 따라 형성된 *natura*와 그 *natura*를 따르는 것을 일컬어 *regula*(道, 법칙)라 한다. 혹은 이성에 합치되는 자리로 되돌아가기를 일컬어, 이 법칙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일들을 조절하는 훈련인 한에서, *institutio*(教)라 한다. 혹은 덕들의 가르침이라 한다.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볼프의 문장은 라틴어 『중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하지만, 그대로 베끼지는 않았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다음 비교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라틴어 『중용』	볼프
Id quod a caelo est homini inditum dicitur <b>natura rationalis</b> : quod huic <b>conformatur</b> natura et eam consequitur, dicitur <b>regula</b> ,	quod <b>naturae rationali conformatur</b> , illud esse <b>regulam</b> , juxta quam actiones dirigendae, idem esse

seu <u>consentaneum rationi</u> , restaurare quoad exercitium hanc regulam se suaque per eam <u>moderando</u> , dicitur institutio, seu <u>disciplina virtutum</u> .	<u>rationi consentaneum</u> , et <u>virtutis disciplinam</u> in eo consistere, ut nos et nostra per eam <u>moderemur</u> .
--	--

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볼프가 거의 라틴어 『중용』을 그대로 베끼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약간의 통사적인 변환은 있지만, 핵심 개념은 인토르체타의 그것들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볼프의 언명(*rationi consentanea*)은 정확히 『중용』 “씩이 피어나고 모든 감정들이 적도에 머무르면, 이런 상태를 일컬어 콘센타네움(和)라고 한다. 혹은 감정들 사이에서 있는 혹은 이성 자체와의 어떤 어울림(*at ubi pullularunt, et omnes attigerunt rectae rationis dictamen, dicuntur consentaneum, seu quidam passionum inter se et cum ipsa ratione concentus*)”이라는 라틴어 번역과 일치한다. 그런데, *consentaneum passionum* 혹은 *cum ipsa ratione concentus*를 볼프는 나중에 『이성심리학』에서는 *harmonia animae ac corporis*로 표현한다. 표현상에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다른 하나는, 볼프가 법학자 그로티우스의 인간의 자연 권리의 언급하면서 라틴어 『중용』에서 끌어온 개념들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볼프는 자연 권리가 인간 본성에 일치하는지에 근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Hanc sententiam solidam ergo probo, atque hinc, quae tanquam rationi consentanea in scientia morum praecipuntur, ex convenientia eorum cum natura humana dijudicanda esse inculco*).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볼프가 인용하는 그로티우스의 언명(*rationi consentanea in scientia morum praecipuntur, ex convenientia eorum cum natura humana*)이 라틴어 『중용』의 그것과 거의 같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볼프는 그로티우스의 주장을 바탕으로 라틴어 『중용』에 담긴 언명을 객관적 도덕이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정당화 과정을 통해서 볼프는 서양 세계에 동양의 도덕 철학을 선전한다.

사실, 볼프가 그로티우스의 권위를 빌리려 했던 이유는 인간 행위에 대한 도덕과 윤리의 기준과 척도는 더 이상 신의 은총이나 계시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 본성과 일치하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근거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서부터다. 그의 주장을 들어보자.

(40) *Essentiam esse primum rei conceptum, unde ratio redditur ceterorum, quae insunt, vel inesse possunt, philosophiae initiati minime ignorant. Enimvero ex essentia rerum tantum innotescit, quid vel necessario ac semper insit, vel inesse possit. Quodsi vero ratio quaeritur, cur illorum, quae non necessario insunt, aliquid actu insit; habenda etiam ratio est naturae, hoc est, vis activae, quae suas peculiare habet regulas, juxta quas modificatur. Ita corporum essentia est eorundem structura sive compositio, per eam enim intelligitur, quae iisdem accidere possunt. Enimvero ut mutatio actu accidat, habenda est regularum motus ratio, per quam modificantur vires sive naturae rerum. Quod etiam de mente concipi possit primus aliquis conceptus, unde ratio reddi potest eorum, quae ipsi insunt ac inesse possunt, et quod vis ipsius activa juxta regulas a regulis motus prorsus diversas modificetur; in Meditationibus de Deo, anima et mundo docui. Qui Germanica legere non potest, vel non vult; ille evolat Cl. Thuemmigii Institutiones philosophiae et quidem in Institutionibus Psychologiae seu Metaphysicae part. 3. §171 & seqq. P.160 & seqq. ubi Psychologiam rationalem pertractat. Leges, quae facultatem cognoscitivam dirigunt, logicas; quae vero facultati appetitivae serviunt, ethicas sive morales appellamus. Enimvero non opus est, ut hic quaedam de essentia et natura mentis a priori deducta assumamus; sufficiunt abunde ea, quae a posteriori communi experientia innotescunt & a laudato Thuemmigio in Psychologia empirica traduntur.*<sup>23)</sup>

(40) 본질이 사물의 제1개념이고, 이로부터 그 안에 내재하거나 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바의 다른 것들의 근거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철학을 막 공부하기 시작한 초심자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무엇이 필수적이고 항상 내재해 있는 것이고 혹은 내재할 수 있는 것인지는 오로지 사물의 본질로부터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다음의

---

23) OS, 130-132.

물음에 대해 그 이유가 물어진다면, 즉 어떤 것이 필연적인 것이 아님에도, 실제로 내재해있다면, 자연에게서 그 이유를 물어야 한다. 즉, 이는 활동적인 힘을 말하는데, 이 힘은 자신만의 고유한 규칙들을 가지고 있고, 이 규칙에 따라서 그 힘은 규제되는 바의 그것을 말한다. 따라서 몸의 본질도 마찬가지로 몸의 구조 혹은 몸의 구성이다. 이 본질을 통해서 무엇이 몸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변화는 실제로 일어나듯이, 운동의 이유들도 규칙을 통해서 찾아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 힘들 혹은 사물들의 본성들이 규제되는 바의 그것이 말이다. 이는 또한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최초의 파악이 가능하다. 이로부터 마음 자체 안에서 내재해 있는 혹은 내재할 수 있는 그것들의 이유들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바의 그것의 파악이 말이다. 또한 마음 자체의 활동적인 힘이 규칙에 따라 규칙에 의해서 전적으로 가지각색의 마음의 움직임들을 규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파악이 가능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하느님에 대한 명상과 영혼과 세계에 대한 논의에서 내가 증명한 바 있다. 독일어로 읽을 수 없는 사람은, 혹은 읽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클레멘스 팀미기우스가 출판한 『철학 강의』와 『심리학 강의 혹은 형이상학 강의』의 제3부 171장 혹은 160쪽 이하를 참조하길 바란다. 심리학 문제를 논의한 곳은 여기이다. 인식 능력을 관장하는 것을 논리 법칙이라 부른다. 그러나 욕구 능력을 관장하는 것을 우리는 윤리 혹은 도덕 법칙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여기에서 마음의 본질과 본성에 대해서 경험 이전의 심급에서 뭔가를 전제로 끌어올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공통된 경험의 수준에서 후차적으로 관찰된 것들이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앞에서 칭찬한 팀미기우스의 『경험심리학』에서 소개한 바 있다.

인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볼프는 일단 서양의 전통에 따라서 학문적인 탐구는 본질에 대한 파악에서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바탕으로 볼프는 곧장 몸에 대한 탐구도 몸의 본질에 있고, 마음에 대한 고찰도 마음 활동의 원인들을 파악할 때에 가능하다고 언명한다.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볼프의 언명에서 사용되는 주요 술어들이 라틴어 『중용』의 그것들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비교에서 명백해진다.

라틴어 『중용』	볼프
Et quidem, cum sunt in medio;	<b>Actionum honestatem et turpidinem</b>



<p><u>orbis universi magnum principium ac omnium bonorum actionum fundamentum dicuntur(1); cum sunt rationi consentanea, orbis universalis regula, seu Regia humani generis via dicuntur.(2)</u></p>	<p><u>intrinsicam, quam moralitatem objectivam vocarunt</u> (1) Scholastici, et antiquissimi agnoverunt Philosophi, et Theologi acriter propugnarunt. Notiora haec sunt, quam ut exemplis eadem confirmari sit opus. Constat vero, <u>moralitatem objectivam determinatam esse per actionum convenientiam et disconvenientiam cum ipsa natura rationali.(2)</u></p>
<p><u>Dicta Regula cum sit naturae rationali intrinseca nunquam potest, nec vero debet vel uno temporis momento abesse aut separari ab homine; quod si posset aliquando abesse aut separari, jam non esset regula seu ratio a coelo naturae insita.(1)</u></p>	<p>Quod etiam de mente concipi possit primus aliquis conceptus, unde ratio reddi potest eorum, <u>quae ipsi insunt ac inesse possunt, et quod vis ipsius activa juxta regulas a regulis motus prorsus diversas modificetur</u></p>
<p>Cum autem radix passionum intima sit naturae hominis, vel potius ipsamet natura sit ista radix; haec autem in actus suos vel passiones prorumpat assidue, summa cum vigilantia attendit sibi Vir perfectus ut has, ipsius quoque naturae fraeno, quatenus haec rationis et discretionis principium est, moderetur.</p>	<p>Leges, quae facultatem cognoscitivam dirigunt, logicas; quae vero facultati appetitivae serviunt, ethicas sive morales appellamus.</p>

위의 표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세 번째 비교이다. 라틴어 『중용』에

는 도덕이니 윤리와 같은 명시적인 개념이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 볼프는 명시적으로 욕망을 관장하는 규칙들을 도덕 규칙 혹은 윤리 규칙이라고 명한다. 이 언표는 욕망을 관리하는 문제는 더 이상 교회의 관할이 아니라 욕망의 주체 자신에게 속한다는 선언이기에 흥미롭다. 이 선언으로부터, 거칠게 말하면, 두 길이 열린다. 소위, 객관적인 도덕 규칙 혹은 교회 윤리학과는 독립적인 세속 세계의 윤리학으로의 길이 첫 번째이다. 이는 서양 근세 윤리학이 걸어갔던 길이다. 두 번째는 욕망의 주체에 대한 자각(sibi conscius)에 탐구의 길이 그것이다. 볼프는 욕망의 주체에 대한 자각에 대한 문제를 궁구했던 계몽 철학자였다. 단적으로 『이성심리학』과 『경험심리학』이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볼프가 시도했던 심리학 연구를 하면서 내세웠던 연구 목적이 현대 심리학의 연구 목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굳이 이름 부치자면, “심리학 윤리학”, “윤리 심학” 혹은 “도덕 심학” 정도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소위 볼프의 “도덕 심학”의 특징은 감정과 욕망을 부정적인 무엇이 아닌 중립적인 무엇으로 바라본다는 데에서 찾아진다. 그렇다면, 감정과 욕망에 대한 볼프의 이와 같은 중립적인 시각은 순수하게 볼프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일까? 물론, 감정과 욕망을 중립적으로 바라보려는 시선은 이미 스피노자에서도 발견된다. 이에 대한 전거는 다음과 같다.

III. Per affectum intelligo corporis affectiones, quibus ipsius corporis agendi potentia augetur vel minuitur, juvatur vel coercetur, et simul harum affectionum ideas.

Si itaque alicujus harum affectionum adaequata possimus esse causa, tum per affectum actionem intelligo, alias passionem.<sup>24)</sup>

3. 나(스피노자)는 감정을, 신체의 행위 역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돕거나 억제하는 신체의 변용들, 그리고 동시에 이 변용들에 대한 관념들로 이해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변용들 가운데 어떤 하나의 적합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감정을 능동으로 이해하며,

24) *Ethica*, 3. 3.

다른 경우에는 수동으로 이해한다.

인용에서 살필 수 있듯이, 감정을 하나의 운동으로 보고, 그것이 선으로 혹은 악으로 갈 수 있다는 스피노자의 시선은 볼프의 그것과 유사해 보이고, 어쩌면 스피노자의 입장을 자기 편의에 따라 변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피노자의 설명 방식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볼프의 그것과는 다르다. 우선, 스피노자의 설명이 사태의 해명과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둔다면, 볼프의 관심은 여기에 놓여 있지 않다. 볼프의 주장이다.

Mea enim parum refert, quid de causa commercii animae cum corpore statuatur. Quamvis autem haec Psychologiae pars tota hypothetica videri possit et eo etiam consilio a Psychologia empirica separata fuerit, ne principia, quibus in Moraliibus praesertim utemur, ab hypothesis pendere viderentur, cum ex citationibus apparere possit, quatenam sint ab omni hypothesis libera.<sup>25)</sup>

나(볼프)의 관심은 마음과 몸의 상호 관계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놓여있지 않다. 비록 나의 심리학 논의의 일부가 전적으로 이론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또한 그것이 경험심리학과 분리된 것임에도, 우리가 특히 도덕의 기준들로 사용할 저 원리들이 [이론적] 전제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럼에도 양심을 걸고 말하건대, 나는 어떤 학설도 [이론적 전제로부터] 끌어내지 않았다. 이는 인용들로부터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도대체 어떤 것들이 [이론적] 전제들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운 것들이 무엇인지가 말이다.

볼프는 자신의 논의가 이론적 탐구에 있지 않음을 천명한다. 비록 『이성심리학』과 『경험심리학』을 읽어보면, 그 내용은 이론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말이다. 어쨌든, 인용에서 볼프가 천명하듯이, 도덕의 실천에 도움이 되는 원리의 탐구가 볼프의 저술 목적이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론이 아닌 실천을 강조하는 볼프의 태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하는

---

25) *PR*, b 2-3.

것이 있다. 바로 1702년에 『사서』, 『효경』, 『소학』을 번역한 프랑소아 노엘이 유럽의 독자에게 보내는 헌사의 첫 문단이 그것이다.

독자여, 나의 친구여, 당신에게 여기 여섯 권의 중국 고전에 대한 라틴어 번역을 소개합니다. 부디 이 책들이 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머리로 알려고만 하지 마시길. 대신에 당신의 몸으로 실천하시길, 당신에 여기에서 올바르게 깨우치게 될 그것들을 말입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책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추천되었고 덕에 진실로 어울리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론에 대한 책들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내용 그 자체만 본다면, 당신은 고대 그리스 인들에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책들에서 제발 이런 것들은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지 주제들의 발견이 어떻고, 배치는 또한 어떠한가, 주제들의 분할은 어떻고, 논증의 구성은 어떠한가 따위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낚아채 가버리는 요즘 책들에서 바라는 그런 것들은 말입니다. 이 책들은 옛날 방식으로 말 합니다: 이것들은 이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추구합니다. 어떤 때는 어디에서 끌어온 문장들을, 어떤 때는 대화를, 어떤 때는 예화들을 제공합니다. 물론 아주 섬세한 논증 방식으로 저술된 것도 있습니다. 추론의 방식에 따라 말하기의 순서를 취하는 것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학자인 맹자의 책이 그렇습니다. 맹자는 논증과 설득의 기술에 능한 사람으로 여러 대화들을 묶어 하나의 체계로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뭔가 심오한 혹은 숭고한 학설을 마음속으로 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sup>26)</sup>

인용은 중국 사상의 특징에 대한 노엘의 생각과 볼프가 자신의 심리학 연구가 “이론이 아닌 실천(rem, non artem)”을 추구한다는 생각과 서로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어쩌면, 이것이 볼프가 라틴어 『중용』에서 읽어내고자 했던 동양 사상의 고갱이었을 것이다.

26) 참조, Fr. Noël, *Sinensis Imperii Libri Classici Sex*, ed. H. Jäger, Hildesheim 2011(1711), a2-3.

#### IV. 남은 추적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 적어도 볼프가 심리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그것도 실천 철학의 한 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라틴어 『중용』과 *natura* 개념이 중요한 참조 사례였음은 분명하다. 다만, 볼프가 *psychologia*을 정초하면서, 라틴어 『공자』, 특히 『중용』의 *natura* 개념에 세부 이론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분석이 요청되지만 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의 정치적 압박에 시달려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계몽 주체를 기획하려 시도했던 볼프에게 라틴어 『중용』은, 특히 성(*natura*) 개념은 매우 흥미로운 문헌이었을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으로부터 실천 철학의 기준과 준거 모범을 찾으려고 시도했던 철학자가 볼프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볼프가 실천 철학을 자연신학과 심리학이라는 두 축으로 세우려 했는데, 실은 볼프의 이와 같은 논의 구조가 실은 라틴어 『중용』의 그것과 너무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가족과 사회와 국가를 다스리는 원리로의 확장을 주장하는 텍스트가 바로 라틴어 『중용』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글에서는 지면관계상 라틴어 『중용』에 들어있는 자연신학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참고로, 중요한 문헌이 라틴어 『중국인 철학자 공자 서문 2』이다. 왜냐하면, 이 문헌이 실은 유교의 자연신학적 문제를 고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성리학에 담겨있는 자연신학의 문제점을 비판하려는 것이 이 저술의 기본 목적임에도 말이다. 이것이 앞으로 추적해야 할 남은 과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프의 생각에 계몽 정신을 진작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 종교적 판단으로부터 자율적인 판단 주체의 기획을 위해서 『이성심리학』과 『경험심리학』을 저술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볼프가 이 기획의 시범 사례로 중국의 실천 철학을 강조했다는 점은 이 정도로 충분할 것이다.<sup>27)</sup> 물론, *psychologia* 개념이 『중용』의 *natura*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에 선부르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지만 말이다. 볼프의 *psychologia* 개념이 『중용』의 그것처럼 정신과 경험, 즉 이성과 감정을 통합 관계에서 보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전까지 학자들이 중시하지 않는 마음의 문제를, 즉 “심리학” 문제를 학적 대상으로 삼은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용』의 *natura* 개념은 서양 개념 전통에서는 포착되기 어려운 개념일 것이다. 적어도 현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근대 시기까지는 *anima*는 *anima*의 관점에서, *psychologia*는 *psychologia*의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서양에서 이성과 감정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피에로 아도(Pierre Hadot) 정도이기 때문이다. 물론, 제레미 리프킨의 『공감의 시대』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인간학적인 의미에서 인간 내면에서 특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일반에 대해서, 이성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엄밀하게 구분해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용』의 인간 이해는 그것이 라틴어로 번역되어 서양의 지성 담론 시장에 소개되었던 당시보다도 어쩌면 오늘날 더 큰 물음과 생각거리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은 이성적인 측면에서의 분석만으로는, 또한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관찰과 물질적 단위로 환원해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27) 중국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은 대표적으로 라이프니츠에게서도 확인된다. 참조, *Novissima Sinca*(『중국에 대한 최신 소식들』), 11-12: 일찍이 누가 믿을 수 있었겠는가? 도대체 이런 종족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물론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우리 유럽인들이 미풍양속의 모든 세련됨을 위해서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이런 우리를 교양이 우러나는 세련된 생활양식에 대한 가르침으로 능가하는 종족이 있기에 말이다. 여하튼 간에 내가 이 종족을 더 잘 알게 되면 될수록, 나는 이 사실을 중국인들에게서 확인하였다. (...) 일개 농부에 불과할지라도 심지어 일개 하인에 불과할지라도, 중국인들은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고 혹은 오래 동안 만나지 못한 경우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기뻐한다. 아주 사랑스럽고 아주 존경스럽게 서로를 극진히 떠받든다. 이런 모습에 우리 유럽인들은 놀라서 어안이 병병할 정도로 말이다. 이와 같은 농부와 하인들의 예의 방식은 심지어 우리 유럽의 귀족들이 자랑하는 온갖 예법에 능가할 정도이다. 하물며 고위 관리들 고급 학자들은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지 싶다.

남은 추적 가운데에 또 다른 하나가 또는 볼프의 책들을 누가 읽었는지에 대한 물음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향사의 추적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일단, 지면 관계 문제도 있고, 또한 그 논의의 접근 방법과 추적 방식이 이 논문의 그것과는 약간은 다르기 때문이다. 대신에 앞으로 추적해야 할 철학자들에 일부 소개 정도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과연 볼프의 책들을 누가 읽었을까? 우선 데이비드 흄이 읽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감성과 감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담고 있는 흄의 『인간 본성에 대한 고찰』을 출판한 해가 1739년이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흄이 『중용』을 읽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볼프의 저술을 읽었을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성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서양 전통에 국한해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동양의 전통에서 접근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전모가 드러날 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psychologia*라는 용어의 이해와 관련해서 동양 특히 『중용』과의 영향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단적으로 칸트는 볼프의 책들을 읽었을까? 읽었다면, 어떻게 읽었을까?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칸트가 자신의 박사 논문에서 *psychologia*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다.

Phaenomena recensentur et exponuntur, primo, sensus externi in PHYSICA, deinde sensus interni in PSYCHOLOGIA empirica.<sup>28)</sup>

사람은 현상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검증하고 설명한다. 하나는 외적 감각들인데, *physica*에 속하는 것들이다. 다른 하나는 내적 감각들인데, 경험 *psychologia*에 속한다.

칸트가 별다른 인용 없이 사용하고 있는 *psychologia*는 아마도 볼프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칸트가 자신의 박사 논문에서 사용하는 다른 주요 술어들도 볼프의 그것들로 추정되기 보인다. 예컨대,

28) *De Mundi Sensibilis Atque Intelligibus Forma et Principiis(1770)*, cap.1, ed. Wilhelm Weischedel(Suhrkamp, 1968), 42.

repraesentatio(표상), intuitus purus(순수 직관), commercium(몸과 마음의 관계) 등인데, 이것들은 볼프의 문헌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술어들이기 때문이다<sup>29)</sup>. 단적으로 칸트의 다음 문장은, 앞에서 인용한 볼프의 주장을 환기시킨다.

Repraesentationi autem sensus primo inest quiddam, quod dices Materiam, nempe Sensatio, praetera autem aliquid, quod vocari potest forma, nempe sensibilem species quae prodit, quatenus varia, quae sensus afficiunt, naturali quadam animi lege coordinantur.<sup>30)</sup>

일차적으로 감각이 표상하는 것에 안에는 사람들이 materia(질료)라 부르는 뭔가가 들어 있다. 감성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밖에도 forma(형상)이라 부르는 것도 있다. 감각되는 것들의 species(대상)도 들어 있다. 이것이 밖으로 나오는데, 다양한 것들인 한에서, 이것들이 감각을 작동시키며, 이것들은 마음의 본성-규칙에 조응한다.

인용에서, 어쩌면, 칸트가 말하는 *materia*가 볼프가 “표상” 이전 상태의 무엇일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이 몇 개의 주요 술어들만 볼 때에도, 특히 *psychologia* 개념의 경우는 칸트가 볼프의 개념을 수용한 것이 명백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볼프와 칸트 사이에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음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볼프와 칸트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문헌 비교와 고증이 요청된다 하겠다. 어찌되었든, 마음의 연구를 실천 철학의 토대로 삼으려는 과정에서 탄생한 볼프의 심리학 개념은 프랑스의 디드로(D. Diderot, 1713-1780)가 기획한 『백과사전, *Encyclopedie*』(1751-1784)를 통해서 전 유럽으로 소개되었다. 여기까지가 *psychologia* 개념

29) 비교, Kant, (P. 86), Ut autem habeamus quod in promptu sit et luculenter cognoscibile, horum iudiciorum criterium et vel uti Lydium lapidem, quo illa dignocamus a genuinis, simulque, si forsan firmiter adhaerere intellectui videantur, artem quandam docimasticam, cuius ope, quantum pertineat ad sensitiva quantam ad intellectualia, aequae fieri possit aestimatio, altius in haec quaestionem descendum esse puto.

30) *De Mundi Sensibilis Atque Intelligibus Forma et Principiis*(1770), cap.4, ed. Wilhelm Weischedel, (Suhrkamp, 1968), 30.



이 이른바 근-현대의 “심리학(心理學)”이라는 학문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용어로 자리 잡게 된 지성사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다.

## 참고문헌

### 1차 문헌

- Wolff, C.(1988), *Oratio de Sinarum philosophia practica*, Michael Albrecht, Hamburg.
- \_\_\_\_\_ (1983), *Philosophia rationalis sive logica pars I*, Jean École, Hildesheim(1740).
- \_\_\_\_\_ (1738), *Psychologia emperica, methodo scientifica pertracta, qua ea, quae de anima humana indubia experientiae fide innotescunt, per essentiam et naturam animae explicantur, et ad intimiorem naturae ejusque autoris cognitionem profutura propununt.*, Francofurti et Lipsiae.
- \_\_\_\_\_ (1740), *Psychologia rationalis, ...*, Francofurti et Lipsiae.
- Codex Latinus 6277*, BNF.
- Confucius Sinarum philosophus*, ed. Ph. Couplet, et al., Paris 1687.
- Monumenta Germaniae Paedagogica, Schulordnungen Schulbücher und pädagogische Miscellaneen aus den Landen deutscher Zunger*, Karl Kehrbach, Berlin 1887.
- Noël, F.(2011), *Sinensis Imperii Libri Classici Sex*, ed. H. Jäger, Hildesheim(1711).
- Leibniz, G. W.(1979), *Das Neueste von China*(1697), Nesselrath und Reinbothe, Köln.
- Kant, I.(1968), *De Mundi Sensibilis Atque Intelligibus Forma et Principiis*(1770), cap.1, ed. Wilhelm Weischedel, Suhrkamp.

### 2차 문헌

- 이향만, 장동진 외(2009), 데이비드 E 먼젤로의 『진기한 나라, 중국』, 나남출판사.
- 이향만(2010), 『『중국인철학자공자(Confucius Sinarum Philosophus)』와 계몽철학: 전 레논쟁의 철학적 영향과 형이상학적 보편주의』, 『신학과 철학』 17, 서강대학교.
- 주겸지(周謙之)(2009), 『중국이 만든 유럽의 근대』, 전홍석 옮김, 청계출판사 2003.
- 井川義次, 『宋學の西遷』, 人文書院.
- Ching, J. & Oxtoby, W. G.(1992), Moral Enlightenment: Leibniz and Wolff on China, in *Monumenta Serica XXVI* , Sankt Augustin.

Jensen, L. M.(1997), *Manufacturing Confucianism*, Duke University Press.

Berger, W. R.(1990), *China - Bild und China-Mode im Europa der Aufklaerung*, Köln.

## Abstract

It is well-known that Wolff was a very significant Sinophile. It is noteworthy to see how he read *Confucius*. For this, I investigated some traces which show how Wolff understood and used *Confucius* for his philosophy. For the sake of brevity, however, I limited my investigation on analyzing two dedications: one of them was dedicated by Wolff to the prince William of Hessen in *Psychologia empirica*(1732, Frankfurt & Leipzig) and the other to the prince Friedrich of Hessen in *Psychologia rationalis*(1734, Frankfurt & Leipzig). Based on this, I made a comparison between the term *Natura*(性) of *Scientiae Sinicae Liber Secundus*(中庸) and the concept of *psychologia* of Wolff's *Psychologia empirica* (1732) and *Psychologia rationalis*(1734). From this, I suggested newly that Wolff's *psychologia* might be influenced from the *natura*-concept in *Scientiae Sinicae Liber Secundus*, because Wolff's concept *psychologia* is structurally compared with the *natura* - idea in *Scientiae Sinicae Liber Secundus*. To be sure, however, *psychologia* is an idea which cannot be understood in the viewpoint of modern psychology. It is a concept which stands nearer to the *natura*-concept of *Scientiae Sinicae Liber Secundus*. It is, in a way, a "hybrid" concept; on the one hand because the term *natura* in the translated can be compared to the term *Psychologia*, on the other hand, however, it is not completely identical with *Psychologia*. So far, I think, discussion should be open in worldwide perspective.

【Keywords】 Wolff, *psychologia*, Intorcetta, *Confucius Sinarum philosophus*, *natura*

논문 투고일: 2014. 8. 21

심사 완료일: 2014. 10. 10

게재 확정일: 2014. 10. 10